

## 멸망과 평안 사이

### 잠언 1:20 - 33

#### 다른 선택, 다른 결과

본문에서의 지혜는 성안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지혜를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이들은 멸망을 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안심하며 평안히 살것을 택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혜를 선택하면 삶을 바꾸어야 하기에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 처음에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선택하며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숙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만한, 미련한 사람을 가르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며 지식, 지혜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에 안주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잠언에서 하는 경고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호히 돌아서야 하며, 그 때 지혜의 영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킵니다.

#### 지혜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삶의 방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세상을 살아오던 우리의 방법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를 해야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의 방식이 세상에 잘 맞는 것처럼 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거부하며, 자신의 세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을 원하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스스로를 통해서 평안을 이룰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는 평화는 일시적이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믿음으로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새 삶의 방법은 말씀을 기준 삼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